



‘마리텔’ 한번 붙어보자

〈마이 리틀 텔레비전〉

VS



마리텔과 똑 닮은 ‘스타꿀방대첩 좋아요’ ‘어서옵SHOW’ 등 잇따라 선보여

재능 기부·기부금이라는 ‘감동 코드’ 더해 소통형 예능으로 시청자 공략

지난해 MBC TV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하 ‘마리텔’)의 등장은 방송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소위 ‘소수문화’이던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방송을 지상파 TV로 그대로 옮겨오는 독특한 발상에 방송에서 쉬이 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출연자들, 재치 넘치는 시청자들의 댓글까지, ‘마리텔’은 뜨겁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방송가를 휩쓸었다.

한국PD대상 TV부문 실험정신상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상도 줬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최근 KBS와 SBS가 여러 면에서 ‘마리텔’과 똑 닮은 ‘어서옵SHOW’와 ‘스타꿀방대첩 좋아요’(이하 ‘좋아요’), ‘꽃놀이패’ 등을 잇따라 선보이며 ‘마리텔’ 따라잡기에 나섰다.

◇기세썩인 ‘마리텔’...“시청자 변화 발맞춰” 도전장= 백종원, 예정화, 김영민, 오세득, 정샘물, 양정원, 이경규... ‘마이 리틀 텔레비전’으로 화제가 됐거나 화제가 되는 인물들이다.

1년 남지 방송된 ‘마리텔’은 수많은 화제의 인물을 낳았다. 기존 방송이라면 게스트로 출연해 잠시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법한 인물들이 ‘마리텔’에서는 각자 주인공이 됐다.

가수와 배우는 물론이고 요리사, 스포츠선수, 헤이스타 일리스트, 마술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동등하

게 경쟁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때 10%대 시청률을 기록했고 인터넷 생방송 접속자도 12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출연자들이 가지고 나오는 소재가 겹치고 포맷의 신선함이 떨어지면서 시청률은 5%대로 떨어졌고 1위 출연자 방송의 접속자 수도 2만 명대에 머물고 있다.

‘농방’을 창시한 이경규나 탄탄한 몸매로 뽐낸 양정원이 이따금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방송 초기의 화제성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마리텔’로서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된 셈이고 경쟁 방송사 입장에서는 ‘마리텔’에 대처해볼 만한 상황이 된 것이다.

‘어서옵SHOW’를 담당하는 김호상 KBS 9프로덕션장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1인 방송, 페이스북 라이브 등 SNS를 통한 방송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방송이 더는 낯선 존재가 아니게 됐다”며 “시청자들이 양방향 소통에 익숙해진 만큼 일방적이었던 방송도 변화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최근의 경향을 설명했다.

◇‘마리텔’에 감동 더한 새 프로그램...“반응은 아직”= 지난달 6일 시작한 ‘어서옵SHOW’와 20일 1회 파일럿(시범제작)으로 방송된 ‘스타꿀방대첩 좋아요’는 각각 재능 기부와 기부금이라는 ‘감동 코드’를 더해 시청자의 마음을 노렸다.

‘어서옵SHOW’에서는 쇼피호스트로 변신한 MC 이서

진·김종국·노홍철이 안정환, 송소희, 로봇 휴보, 서장훈, 하석진, 스티브&요니P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재능 기부자와 짝을 이뤄 인터넷 생방송으로 재능 기부 상품을 판매한다.

시청자는 이들이 준비한 홈쇼핑 생방송을 보고 축구교실, 국악행사, 일일주부, 옷 리폼 등의 상품이 마음에 들면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사연과 사진을 보내 구매 의사를 밝힌다.

한 공간에서 세 팀이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아옹다옹 하는 모습이나 생방송에서 나오는 실수 등의 에피소드들이 ‘마리텔’과 닮았지만, 출연자별로 실내와 실외를 오가는 편집 때문에 산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채팅에 익명으로 참여하는 ‘마리텔’과 달리 유료 문자로 본인의 사진까지 공개해야 하는 방식은 시청자에게는 부담이다.

첫회 6.4%로 야심 차게 출발한 시청률은 4회 3.6%까지 떨어졌다.

파일럿으로 방송한 ‘좋아요’도 지상열, 최여진, 정준하, 서장훈, 이지혜, 선, 김가연 등 확실한 캐릭터가 있는 스타들을 섭외해 이들에게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시청자로부터 ‘좋아요’를 받은 만큼 원하는 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SBS는 서장훈·안정환 등 6명의 연예인이 2박3일간의 여행을 내이며 V앱으로 생중계하며 자신의 운명을 시청자의 선택에 맡기는 파일럿 예능 ‘꽃놀이패’까지 선보이며 소통형 예능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모습이다.



‘차줌마’ 돌아온다

tvN ‘삼시세끼’ 새 시즌 내달 1일 첫방

스타 PD 나영석이 연출하는 tvN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가 새 시즌으로 돌아온다.

7일 tvN에 따르면 ‘삼시세끼’ 새 시즌은 이번 주 중에 모처에서 촬영을 시작해 오는 7월 1일 첫 방송에 들어간다.

어촌편 시즌 1, 2에서 뛰어난 요리 실력 덕분에 ‘차줌마’로 불렸던 배우 차승원과 조수 손호준이 그대로 출연한다. 두 사람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유해진의 합류 여부는 미정이다.

새 시즌은 어촌편 무대였던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를 떠나 다른 곳에서 촬영한다.

tvN 홍보팀은 “‘삼시세끼’ 새 시즌이 어촌편이 될지, 농촌편이 될지 콘셉트는 미정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디어 마이 프렌즈’ 김정환, 알고보니 고두심 친아들

극중 고두심 동생 역 출연 화제

tvN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고두심의 동생이자 고희정의 삼촌으로 출연하고 있는 배우 김정환이 고두심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7일 tvN에 따르면 극중 장난희(고두심 분)의 동생 장인봉으로 출연 중인 배우 김정환은 고두심의 1남 1녀 중 둘째인 아들이다.

고두심이 지난 2009년 한 매체와 한 인터뷰에 따르면 김정환은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당시 고두심은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연극영화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내가 설득해 2학년 때 전공을 바꾸었다”며 “배우가 되어봤자 평생 누구 아들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 교수나 외교관 등 다른 전문직을 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PD의 자연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K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공개토포대왕 50 안병 우리말(재)	00 동네스타 전국방송 내보내기(재)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옥중화)(재)	00 닥터 365 05 정은표의 세계문화유산순례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2	00 KBS 뉴스 12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운빨 로맨스)(재)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55 TV 블로그 토크쇼
1	00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별빛가족			
2	00 2016 단오장사 씨름대회 (한라장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몬스터(재) 25 드림주니어 스페셜 55 텔레몬스터(재)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55 튜닝생활제2	00 자동차부착식 위키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이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고물라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필통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토크쇼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5 일일연속극 (별빛가족)	30 글로벌 24 55 동네스타 전국방송 내보내기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 10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	00 수목미니시리즈 (운빨 로맨스)	00 드라마스페셜 (따따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벤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보컬전쟁 신의 목소리
12	5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0:30 한국기행
05:30 건강한 아침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덕년의 오이스박이와 부추김치)
05:4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동남아 섬 기행 필리핀 세부, 루손)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10 세계의 눈	12:00 EBS 정오 뉴스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7:30 주사위 요정 큐비주	12:40 지식채널 e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45 EBS 초대석
08:00 땀방울 유치원 1~3	13:40 사이틴3 왔다 사춘기
08:45 방귀대장 뽀롱이	13:50 이말 스페이스 정글
09:00 출동! 슈퍼핑크	14:00 책과 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30 미연마이로봇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테마기행
15:20 꼬마철학자 휴고	(이탈리아 르네상스 기행 3부 미켈란젤로와의 산책)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21:30 한국기행
15:50 바오밥섬의 피오파오	(두근두근 낭만로드 3부 서해안 힐링길 태안해변길)
16:00 출동! 슈퍼핑크(재)	21:50 EBS 다큐 프리덤
16:30 방귀대장 뽀롱이(재)	(생존의 비밀 3부 사라지는 얼음왕국)
16:45 땀방울 유치원 1~3(재)	22:45 극한직업 (생활 유지 제작)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3:35 장수의 비밀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24:05 지식채널 e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24:10 EBS 초대석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지	(행복 심리학자 서은국)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0:40 다큐 오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8일(음 5월 4일 辛酉)
子	48년생 조금만 더 오른다면 고지에 도달하게 되리라. 60년생 즉 응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속을 태울 것이다. 72년생 반드시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라. 84년생 무리가 따르다면 행하지 않아야 옳다. 행운의 숫자 : 13, 30	42년생 으뜸의 것으로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다. 54년생 장기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66년생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이를 만나게 되리라. 78년생 급하게 뛰어다녀야 할 일들이 많아서 정신없겠다. 행운의 숫자 : 49, 64
丑	49년생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한 시도 눈을 떼지 말고 지켜 봐야겠다. 61년생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 73년생 예상했던 대로 전개되는 형국이다. 85년생 사소하다고 여기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자. 행운의 숫자 : 66, 06	43년생 고통의 끝은 지극히 달콤할 것이다. 55년생 비슷한 수준으로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67년생 모순과 단치 투성이인 빨리 포기할수록 이익이다. 79년생 여기저기에 빈틈이 보이므로 관리를 잘하자. 행운의 숫자 : 46, 87
寅	50년생 정성을 다 해왔다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 62년생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실마리를 찾게 된다. 74년생 방치한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86년생 지나친 낙관은 반목을 보이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24, 70	44년생 천성과 습관이 걸림돌로 작용하여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56년생 영동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68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미를 찾게 된다. 80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행운의 숫자 : 54, 28
卯	51년생 집중적으로 조명이 될 필요가 있느니라. 63년생 하나가 이뤄지면 연쇄적인 효과를 보겠다. 75년생 재반사를 살리 위주로 바라보고 조응해야 한다. 87년생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89, 40	45년생 깔끔하게 보완한다면 완전히 구도가 달라지리라. 57년생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무난하리라. 69년생 속명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81년생 끈기를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행운의 숫자 : 71, 53
辰	40년생 차이가 보인다. 52년생 주변의 체면 때문에 참아야만 하는 고통이 지대하다. 64년생 쉽게 파악할 수 있다. 76년생 큰 문제는 없으나 획기적인 진전도 보이지 않는다. 88년생 본말이 전도되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84, 57	46년생 징후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58년생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만 하는 고통이 있다. 70년생 상응하는 흐름에 내맡긴다면 무리 없이 성취한다. 82년생 숨은 뜻까지 파악할 수 있는 혜안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47, 31
巳	41년생 어떤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53년생 순리대로 행하면 행통하리라. 65년생 남을 의식할 필요 없다. 77년생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수용하고 보자. 89년생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08, 99	47년생 상대의 입장과 체면을 고려해 주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볼 수 있다. 59년생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이루어진다. 71년생 기대했던 바는 들어오게 되어 있다. 83년생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9, 96